

# 광주시, 교통안전시설 긴급복구반 운영

장마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사고시설 복구

광주지방경찰청·시설유지보수업체 등 2개반 30여명 편성

광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복구반을 운영한다.

교통안전시설물은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작동이 중단될 경우 교통혼잡과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지방

경찰청, 교통시설 유지보수업체 등이 참여한 긴급복구반을 2개반 총 30여 명으로 편성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교통시설 파손, 감전 위험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먼저,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교통정보센터 CCTV 107대, 통합관제센터 CCTV 6593대의 감시활동

을 강화한다

집중호우 시에는 남구 무등시장 등 침수취약지역 16곳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사전점검하고 특별 관리한다.

또한, 피해상황이 발생해 재난 예방통합관제센터와 점검반의 활동 정보가 교통정보센터 관제실에 접수되면 긴급보수반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게 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구조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지역별 단가 계약 업체를 통해 신속히 복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허咧배 시 교통건설국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시설의 고장·파손이나 강풍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2차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조인호 기자



## 순천대-전남농업기술원, 상생 협업체계 구축 업무 협약

산학연관 협력 강화 통한 우수 인재 양성위해 추진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최근 나주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상황실에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 박기영 대학원장, 배창후 생명산업대학원장, 강형일 기획처장, 허재선 산학협력단장과 전남농업과학기술원 박홍재 원장, 박병준 연구개발국장, 강정화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김선곤 식량작물연구소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과제 추진 등 공동의 이익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 산학협력 교육, 교육과정 공동개발, 인력 교

류 및 시설 공동 활용 등 산학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순천대학교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의 첨단화 스마트팜 기술개발 협력(스마트농업대학원 구축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원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권역별 사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안전한 먹거리 및 수출농업시장 확대 방안 연구 ▲ 정부 R&D 대응 정책과제 공동 개발 및 농업기술분야 도정시책 발굴 ▲대학생 현장실습 및 졸업생 창업농 컨설팅 등 전문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상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양 기관이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R&D 연구 활성화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김정환 기자

## 동구, 1인가구 지원 예산반영 등 정책수립 속도

광주 동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자립과 지원을 위해 광주 5개구 중 최초로 ‘광주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제정한데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5월 기준 현재 전체 4만7천여 가구 중 1인가구가 2만2천여 가구로 가구 대비 45.8%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24일 실태조사 척수보고를 시작으로 설문내용을 확정하고 7월부터 8월까지 동구 1인 가구 2만2천여 가구 중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 조속한 추진 촉구

광주 서구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탄약고 이전 추진 국회간담회에서 공군 탄약고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장, 김양근 탄약고 이전 추진위원장, 광주시·구의원, 지역주민,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대석 서구청장은 “마륵동 탄약고 일원은 광주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상무·금호지구 등 신도심과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마륵동 영외 탄약고 이전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 남구 무등시장,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참

광주 남구 관내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 페스티벌이 열린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무등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무등시장을 꾸준하게 찾아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무등시장과 군분로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무등시장과 군분로 일원에 소재한 대다수 상가 점포가 참여한다.

## 북구, 금융복지 서비스 공로 감사패 받아

광주 북구가 29일 금융복지 암방향 서비스 연계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금융복지 암방향 서비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의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종합상담, 서민금융 상품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북구는 지난 2018년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 취약계층 자활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산구 장덕도서관,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광주 광산구 장덕도서관이 다음달부터 9월 초까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4개 기관이 3개월 동안 매주 1회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는 내용으로 책 읽어주기, 연극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마을실버복지센터는 어르신에게 ‘치매예방 동화레크’를, 창조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담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에게 ‘귀가 번씩! 생각번짜! 책놀이’와 ‘생각짱! 동화놀이’를, 해돋이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에게 ‘그림책 속에서 찾은 놀이연극과 토론활동’을 각각 실시한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조정
- 양도소득세
- 법인설립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보건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있으니,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이!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리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에녹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